



별별신문은 유흥업소 종사자를 위한 신문입니다. 노래방도우미, 성매매집결지, 룸살롱, 단란주점, 키스방, 보도방, 티켓다방, 안마시술소 등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신문으로서, 여성들의 인권과 권리 창안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창간준비호 발행일자:2011.4.28.목요일 발행인:유흥업소 종사자를 위한 신문팀

일하고 살던 곳, 청량리 동네가 사라지고 있다!

청량리 개발?

청량리 도시개발에 대한 이야기는 때론 언론에서, 때론 뜬소문으로 나돌았다. 2010년 8월 청량리 민자역사가 준공되면서 개발의 속도가 붙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 전부터 도로개설공사나 균형발전촉진개발 지역이니

하며 청량리 개발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된 지 오래다. 각종 신문이나 뉴스에 보도되는 청량리 개발에 대한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서울의 대표적 성매매 거리였던 ‘청량리 588’이 역사속으로 사라진다”거나 “민자역사를 중심으로 백화점, 주상복합, 중심적 상권으로서 탈바꿈한다”는 식이다. 마치 여성

들이 일하며 살아오고 있는 공간이었다는 점을 짝 잊은 채 오로지 개발을 통한 상권 조성으로 이익을 얻는 자들에 의해 개발이 부채질되는 느낌이다. 그러나 청량리 민자역사 계획부터 준공까지 2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2007년에 도로확장 공사로 청량리 거리 일부 업소들이 철거되면서도 일부 업소들은

리모델링으로 가게를 단장하는 모습에서, 개발흐름은 생각했던 것처럼 하루아침에 우리가 살던 공간을 확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청량리에서 살거나 일하고 있는 이들에게 불안과 초조, 변화의 긴장감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들만의 도시개발 잔치는 우리를 떠돌게 만든다!



‘청량리 588’ 거리는 대표적인 성매매 거리만큼 성매매방지법에 반대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인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성매매방지법 시행과 더불어 도시재개발로 인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곳이다. 2007년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에 답십리-롯데백화점 도로 주변에 몇몇 가게 건물이 철거되기 시작해서 그 옆에 가게 건물이 모두 철거된 상태이다. “청량리 588 이미지 벗겨

랜드마크를 세운다”는 도시 기획자들의 계획은 2011년 현재에는 더 구체화되어 고층빌딩 6개동을 세우며, 지상 50층 건물이 들어서고 공원 2개와 광장 1곳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계획도 발표된 바 있다.

재정비 기간이 2012년에서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기존에 철거된 구역 외의 구역도 2012년까지 철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청량리에서 살았던 언니들, 또는 일했던 언니들은 이러한 철거상황에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미 청량리에 있는 언니들도 과거에 마장동 등지가 개발되면서 청량리로 모여든 분들도 있다고 전해지고있다. 도시개발은 언니들의 영업이익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고, 급기야 삶의 등지를 송두리째 옮겨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겨주기도 한다. 이 곳에서 일하는 여성들도 개발과 관련한 소식과 소문들 때문에 영업이익이 줄어들면 장안동과 같은 근처 업소 밀집지역에서 돈을 벌기도 하고, 개발로 인해 거처를 옮길 장소를 물색하기도 한다. 또 기존에 업주와 여성들이 6:4 또는 5:5로 나누던 수익분배는 성매매방지법 시행과 청



량리 재개발로 인해 장사가 안 되면서 월 200-300만원의 월세를 받는 형식으로 바뀌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여성들의 생활은 더 궁핍해졌고, 이젠 개발까지 본격화되면서 이주 고민과 재취업의 고민까지 떠안게 된 것이다. 더구나 청량리와 비슷한 성매매 집결지역이면서 더 빠르게 개발이 진행 중인 용산과 영등포에서 일했던 여성들이, 단속과 재개발로 인해 살길이 막막해져 청량리로 몰려들고 있다.

3월, 4월 청량리 몇 구역에 건축심의안이 통과되면서 개발분위기는 한껏 고조되고 있는

데, 특히 내년까지 많은 가게건물이 헐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돌면서 언니들의 우려와 걱정, 두려움이 교차되고 있다. 00아파트가 곧 철거될 거라는 예측 한 가운데 보상계획을 논의하려는 건물주와 업주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그나마 주소등록이라도 되어 있는 세입자들은 이전비 보상이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미등록으로 고용된 상태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은 그저 막막한 미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성매매방지법보다 강력한 도시 재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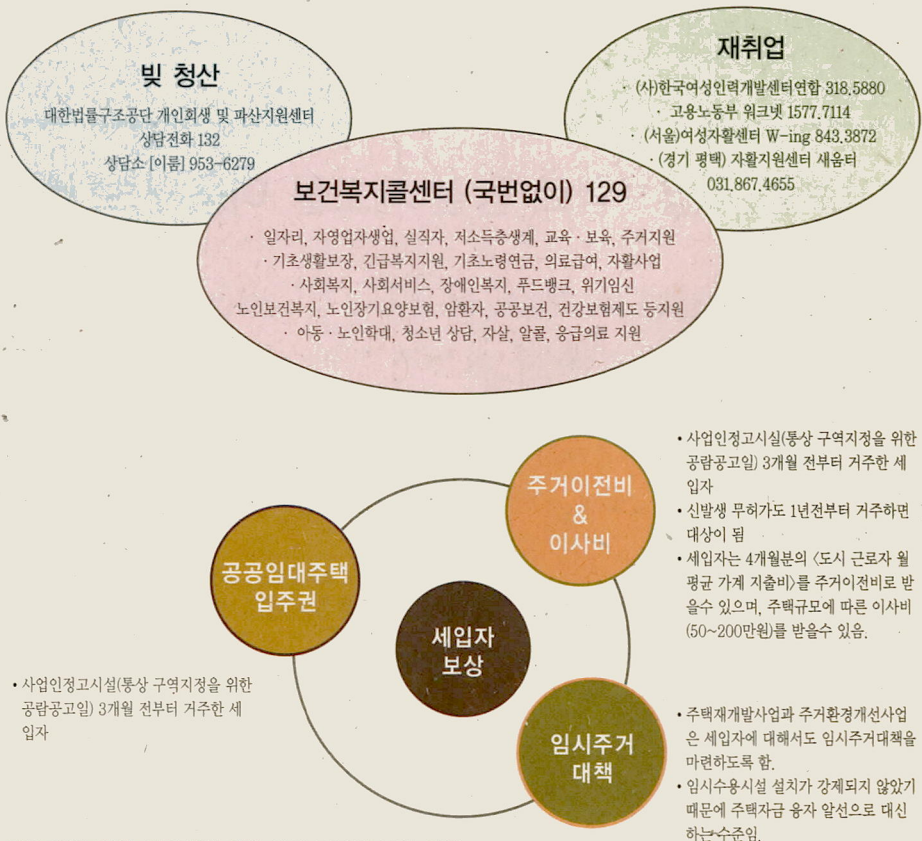
- “그래... 국가를 위해서는 여기가 없어져야겠지. 그런데 난 어디로 가야 하나”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청량리에서도 ‘성노동자’ 중심의 집회가 있었다.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성노동자들의 요구는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을 이끌어 내었고, 이에 2006년부터 2009년 3월까지 ‘이룸’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오롯이 청량리에서 일하는 여성들만을 위한 공간과 시간, 비용이 만들어졌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량리에 있던 언니들간의 “관계”, 그리고 ‘이룸’과 언니들의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언니들은 이 “관계”를 통해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가족 병원비와 생계 때문에 성관매를 해야 했던 언니부터, 20대에 인신매매되어 이 일을 시작했지만, 독한 마음으로 돈을 벌며 재산을 마련한 언니, 너무 많은 빚 때문에 고생하다 파산으로 빚을 정리한 언니, 그날 그날에 만난 진상 손님에 대한 하소연까지... 그 “관계”에

서 하나둘 발산되는 이야기들은 그 동안 사회로 터져나오지 못했던 여성들의 ‘목소리’였다. 성매매방지법은 분명 청량리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잦은 단속과 언론의 노출로 여성들에게 불편과 분노를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사회적으로 성매매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도시 재개발은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미래를 전혀 돌보지 않는다. 또 언론에서는 청량리 588 성매매 집결지를 마치 한시라도 빨리 “없어져야 할 공간”으로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을 “쫓아내야 할 사람”으로만 묘사한다. 최근 청량리에서 만난 한 여성은 “최근 청량리의 개발과 집창촌에 대한 기사가 크게 실리면서 혹여나 단속이 심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서는 여기가 없어져야겠지. 그런데 난 어디로 가야 하나.”라고 말한다. 그 많은 여성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사회의 자원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모두가 개발이라는 핑크빛 전망에 사로잡혀 이들에 대한 대답을 외면하고만 있다.

청량리 도시 재개발, 준비할 수 있는 건 준비하자!



민간개발사업은 세입자에 대한 법적 규정이 전혀 없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주거이전비만 받을 수 있으며, 세입자 대책 기준일에 따라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동네 한바퀴]

여기 사람이 산다.

588에 아파트라급쇼?

청량리에서 래미안이나 이편한세상 따위의 음메~기죽는 이름이 아니어도 아파트라 불리며 언니들이 일도 하고 쉬는 곳을 아시나요?
롯데백화점과 청량리역, 은행, 맛으로 소문난 설렁탕집인 청량리옥을 끼고 있는 완전 대박생활권에 덧붙여서 파출소가 훤히 보여서 경찰이 단속 할 낌새도 샤샤삭 파악할 수 있는 곳으로서, 지어진 지는 벌써 40년이나 되었답니다.
경사진 구조로 아래쪽으로는 1호집부터 8호집까지의 가게를 끼고 있고, 1층의 식당들, 2층의 당구장과 수선집, 다닥다닥 붙어 있는 많은 방들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살면서 청량리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곳! 언니들이 정붙이고 일하면서 쉬었던 청량리 구석구석의 공간에서 다르지만 공통점이 많은사연들을 품고 있는 공간으로 이번 호에는 **아파트를 돌았습니다.



언니들 방 안의 살림들이 여느 집과 다르지 않았어요.
중앙계단을 사이에 두고 양옆으로 주욱 늘어선 복도로 방들이 있는데 사람 한명이 누울 수 있는 한 평짜리가 방 한 칸이었던 곳을 보통 2,3개를 터서 2~3평이 조금 넘는 곳이 각자의 방으로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제각각인 방주인들의 사연만큼이나 방의 수가 많답니다.
제가 찾아가던 언니는 **아파트에서 8년 정도 살고 계시고 햇빛 좋은날 찾아가던 방은 날씨가 좋아서인지 창문은 열어 놓고 올망졸망 늘어선 화분들도 햇빛을 듬뿍 받고 있었어요.
허름해 보이고 아파트라 생각하기엔 2% 부족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언니들과 언니들의 방, 따뜻하고 생기 있지 않나요?

‘내 성격은 내성적이야’

지방에 살다가 청량리에 들어온 언니는 처음부터 **아파트에 살게 되었는데 그때 생각하기에 이 우범지역에서 ‘나도 곧 죽어나가겠구나’ 하는 겁이 덜컥 났었다는군요. 청량리588의 이미지와 함께 허름한 아파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벌써 8년째 살면서, 무서울 것도 없고 하루하루를 씩씩하게 살고 계셨습니다.
밖에서 588을 보는 ‘모습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복닥거리면서 속을 보이고 살아가면서 위로도 받고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어디나 사람 사는 곳은 똑같은가 봅니다.
사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인 만큼 지친 삶을 술로 달래는 사람도 많아서 언성을 높여 신세한탄을 하거나 싸움이 끊이지 않지만, 언니는 껍! 소리 한번 지르고 조용

히 하라고 맞불을 놓는 방법을 쓴다고 하네요.
원래 본인은 내성적인 성격인데, 사람에 따라 성질을 부려야 한다면서 소녀 같은 웃음을 보이시는데 세상사는 요령을 배운 것 같아, 듣는 제가 다 든든했습니다.

나도 늙고 집도 늙어간다.
그래도 개발은 대책없어!



청량리 곳곳에 붙은 현수막을 보셨나요?
2010년 2월에 답십리길을 만든다고 갈레길과 비디오골목이 짝악 헐리더니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정된 나머지 구역도 속도를 붙여서 진행될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언니들이 하루하루 웃고 쉬고 일도 하는 **아파트도 헐리고, 언니들도 뽀뽀이 흩어지겠죠?
40년이나 된 오래된 건물, 아파트라 부르기도 웃긴 건물이어서 ‘거 참 잘됐네!’ 하고 마냥 좋아만 해야 하는 걸까요?
청량리에서의 삶이 오래되고 늙어가는 모습처럼 아파트도 늙어가지만, 가진 사람들만 좋아 죽는 개발이 아니라 언니들의 삶에 스며있는 청량리 동네를 기억해 주는 개발은 어디 없을까요?

언니들의 방

이름 사무실이 청량리에 있을 때 사무실을 방문한 언니들 중에 **아파트에서 사신다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우리는 도무지 거기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번듯한 건물이나 아파트라고 생각되어지는 건물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파출소 앞에 있는 4층짜리 건물이 **아파트라는 사실을 알았을 땐 ‘앵?’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1층짜리 유리방 사이에서 유독 높은 건물은 성바오로병원이나 롯데백화점인 588에서 제법 아파트 같은 느낌도 들었고 건물 안에 들어섰을 때는 지저분해 보이는 건물 밖과 다르게 정갈하게 꾸며진

돌발퀴즈???

****아파트의 정확한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분은 010-8230-6279로 문자주세요. 정답자중 선착순 2명에게 선물 증정!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탕감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건강보험이 있지만 보험료가 체납되어 건강보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되어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산과 소득을 가압류 당하기도 하고, 통장거래 중지를 당하기도 합니다. 체납된 건강보험료는 결손처분 되지 않은 이상 끝까지 빚으로 남아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변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체납으로 인해 의료이용을 줄여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체납보험료 탕감해주는 건강보험 체납결손 처분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여기로 ~
문의 및 상담 : 건강세상네트워크 (02-2269-1904)

故 장자연의 싸인 - 게임은 이제 시작이라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 말은 죽은 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들의 말이다.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죽기 전에 이미 많은 말들을 조금씩 꾸준히 남긴다. 죽음의 원인이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죽는 자를 몰아매기 때문이다. 그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죽음의 이유들을 찾아내는 것이 역술한 사회적 타살을 밝혀내는 첫걸음 일 것이다.

죽음 이후 2년 만에 다시 떠오른 장자연 사건이 국과수의 필적감정 결과 하나로 너무도 깔끔하게 덮여지고 있지만, 필적감정에만 사건의 진상을 의존할 필요는 없다. 장자연 사건의 중심은 2년 만에 나타난 새로운 편지들이 아니다. 새로운 편지들은 사건을 처음부터 재수사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을 드러냈을 뿐이다. 새로운 편지가 진짜든 가짜든 이미 2년 전에 ‘진짜’가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장자연이 자필로 남긴 그 진짜 편지는 내용증명의 효력이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사인, 지장까지 고루 갖추고 있다. 이처럼 증거력이 확고한 것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짜 연예인들과 업소언니들이 하는 일이나 겪는 것들이 얼마나 비슷한데요”

장자연 부활 사건에서도 여전히 장자연은 하나의 도구였을 수도 있다. 장자연 주변 인물들이 등에 업고 있거나 로비하려는 권력층이라던가, 2년 만에 사건을 터뜨린 방송국이라던가, 하는것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

성과 연결된 모든 사건에서 여성연예인들의 비인권적인 현실에는 왜 주목하지 않는가. 언론은 여성연예인의 피해와 구조적 모순을 다루지 않고, 권력을 유지하거나 얻으려는 남성 권력들의 여성연예인에 대한 ‘거래’의 사실 여부만을 가지고 앞치락뒤치락하고 있다.

장자연 사건에서 사건이 아닌 죽은 장자연을 애도하는 것은 정작 여성들이다.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한 여성은 이에 대해 “오죽하면 업소 언니들한테 ‘3등 연예인’이라는 말을 하겠어요. 진짜 연예인들과 업소언니들이 하는 일이나 겪는 것들이 얼마나 비슷한데요.”라고 말한다. 여성연예인의 활동에서 암묵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성적 서비스 또는 성적 노동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여성들이 성접대 제의를 받는 환경은 이미 폭력적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장자연씨 자살 이후 여성 연기자 110명, 여성 연기 지망생 24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는, 연기자의 60.2%가 성접대 제의를 받았고, 지망생 또한 29.8%가 성접대 제의를 받았다고 보고되었다. 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의 설문조사도 이와 흡사하다. 많은 사람들은 ‘성접대 제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거부하면 그만이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성이 아닌 그 어떤 집단이 성접대 제의를 이토록 빈번하게 받았을까. 여성들이 성접대 제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은 이미 폭력적이다. 여성에게 몸이 유일한 자원인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성상납 제의를 뿌리치지 못한 여성들의 행동을 자발적인 행위로 포장하여 성상납, 성접대라 부를 일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부른다 보면 성을 자원으로 활용한 모든 결과를 여성에게 짐 지우고 낙인찍는 것이 당연시된다. 그 먹이사슬에 적응해서라도 매장당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여성들을 두고 굳이 정당하지 않은 욕망이나 타락이라 이름 붙이고 손가락질 하는 것은 사회적 ‘차별’이다.

남성 중심의 문화에 팽배하게 자리잡은 성폭력적인 인식과 행태를 가리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여성 연예인들에

게 성상납 제의를 하고 그것을 수수, 매매한 권력들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인신매매, 성폭력이라고 불러야 아귀가 들어맞지 않을까.

여성연예인 서포터즈 ‘침묵을 깨는 아름다운 사람들’ 출범

‘여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그만큼 내적인 힘이 없어서’라고 하며 죽은 자를 탓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멀리 와 버렸다. 힘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으면서도 마지막 힘을 내어 말하려고 했던 것에 귀 기울일 때다.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한 여성의 죽음 앞에서, 아무런 보상도, 위로도, 진상규명도 없는 상태이다. 정말 아득해진다. 같은 일이 줄기차게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 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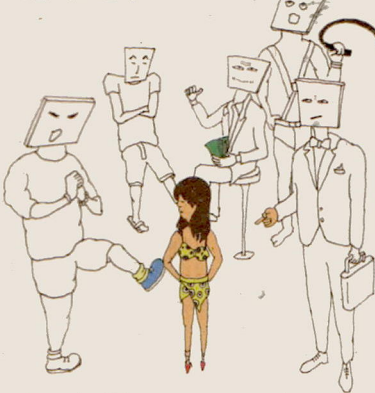
그래도 여성의 죽음을 잊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 공적 기관에는 신고되지 않는 여성연예인 성폭력 실태가 ‘침묵아사’(여성연예인 서포터즈 ‘침묵을 깨는 아름다운 사람들’) 활동을 통해 접수되고 지원되고 있다. 목소리 내고 싶은 여성들이 있고 이를 지원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목소리를 확장시키려는 작은 언론이라도 있으니 지속적으로 싸워볼 것이다.



故 장자연님과 여성폭력으로 죽어간 수많은 여성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달의 만평

그린 이: 연미



세상에 진상은 많다.
정작은 척, 안 그러척 하는 놈들이 벌이는 진상 잔치.
누구도 모르게 내 몸과 마음에 쌓여가는 스트레스와 두려움.
어디에라도, 내 얘기 들어줄 “진상신고센터”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빛 때문에 괴롭다. 그러나 나는 살고 싶다!”

- 예전된 죽음, 포항 유흥업소 여종업원 자살

2011년 3월, 포항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또 자살했다. 이번이 일곱 번째이다. 2010년 7월부터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포항 유흥업소 여종업원 자살은 업소와 여종업원 간의 노예계약과 고리사채를 쓰고 갚지 못해 협박을 당하고 죽음에 이른 사건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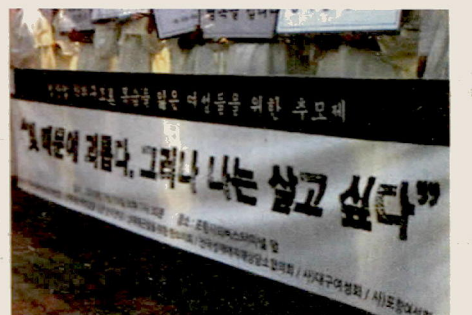
‘마이킹’에 대한 빚독촉과 성매매 강요, 업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당하는 수치와 모멸감이 이들 자살의 주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매년 경찰과 검찰은 단순 신변 비판 자살 또는 단순자살로 수사를 종결시켜 왔다. 그러나 이는 성산업 구조에 고착된 인권유린과 관행이 성매매방지법 이후

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포항 유흥업소 성산업 착취 구조 해체를 위한 대책위원회” 발족

이에 전국의 여성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총 63개 단체는 “포항 유흥업소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여종업원 7명을 자살로 내몬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고 억울한 죽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책위원회는 3월 30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살한 여성들을 위한 추모제를 열었다. 또 핫라인(010-2811-0365)을 개설하여 자살한 여종업원

과 같은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언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월 6일 ‘포항 유흥업소 성산업 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공동행동’에 100여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으며, 포항시장, 경찰청장, 여성가족부장관 등과의 면담을 통해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오는 4월 27일 1시에는 서울여성플라자에서 <포항 사건을 통해 본 성산업 착취구조 실태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고리대금 사채... 비상구는 있다!- 포항 유흥업소와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1.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 ‘마이킹’과 같은 채권은, 채권의 형식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무효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사채업자가 돈을 빌려주고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가하여 폭리를 취하는 경우, 사채업자가 여러 차례 집으로 찾아와 여성과 가족들에게 “빚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공포감을 조성한 경우 ‘대부업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의해 연 30%를 초과할 수 없고, 선이자와 같이 미리 떼는 이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4. 복잡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국번없이) 132 - [이름] 상담소 02.953.6279



인연의 틈새에서

2008년, 그녀는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을 보내왔다. 청첩장을 받아두고 ‘내가 가도 될까, 그녀는 나를 남편에게 뭐라고 소개할까, 나를 소개할 때 그녀는 남편 앞에서 당황하지 않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녀의 새로운 삶에 축복을 해주고 싶었지만 내가 그녀의 과거를 들춰내는 존재이지 않을까란 생각으로 혼란스러웠다. 난 왜 이렇게 그녀의 과거가 걱정이 되었을까.

그녀와의 인연

2005년, 그녀가 A집결지에서 아가씨로 일하고 있을 때 우린 처음 만났다. 난 일주일에 한번씩 A집결지를 돌아다니며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일을 했었다. 빨간불빛이 새어나오는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나와 그녀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듯 했다. 난 항상 그 유리문을 두드렸지만, 그녀는 내게 냉랭했고 무섭게 유리문을 달아버렸다. 눈을 마주하지 않았고, 왜 왔냐고 통명스럽게 귀찮은 듯, 일하는데 방해된다고 밀쳐냈다. “절대로 너에게 마음을 열지 않을 거야! 나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무엇을 해 줄 수 있겠어?”라는 모진 눈빛을 받으면서도 내가 할 수 일이라곤 매주 같은 시간 가게에 들러 멧쩍은 인사를 건네는 것 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초조한 목소리로 일하는 중에 임신이 되어 수술을 하러 가야 하는데 같이 가 줄 수 있냐는 전화를 해왔다. 수술을 마치고 마취에 취해 잠들어 있는 그녀를 보면서, 스무 살이 되기 전에 일을 시작하여 사람들 틈에서 악착같이 살아남아야 했던 그녀의 시간들을 상상해 보았다. ‘돈을 벌어 힘든 가정을 돌보면서 부모 대신 가장 노릇을 해야 했던 그녀의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버거웠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난, 그녀의 삶 앞에 마주하게 되었다. 그렇게 그녀는 조금씩 내가 들어갈 틈을 내어주고 있었다.

다른 방식의 삶, 그 길목에서 다르게 만나기

2011년 어느 날, 자식 둘을 낳아서 엄마의 역할로 바뀐 그녀는, 불쑥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다. 그녀의 결혼 후에 우린 서로의 삶을 사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주 가끔씩은 ‘결혼 생활은 잘 하고 있을까, 남편은 잘해줄까, 남편은 때리지는 않을까, 시댁에서는 잘 해줄까’ 라는 궁금증이 일었다. 전에도 A집결지에서 만나 친하게 지낸 여성들 중에 결혼한 여성들은 몇몇 있었다. 잘 지내고 있는지 재잘재잘 수다를 떨고 안부를 묻고 싶은 마음과 함께 한 건에는 조심스러움과 걱정이 있다. ‘나만 궁금한 게 아닐까? 그녀들도 나를 반가워해줄까? 아님 나라는 존재는 그녀들에게 있어 ‘과거를 들춰내는 사람’ 으로서 단지 잊고 싶은 존재일까?’ 복잡한 마음이 교차했다. 나는 그녀의 삶을 지지하고 싶고, 나 역시 그녀를 통해 지지받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친구이고 싶다. 누구나 험하고 외로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

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될 때가 있지 않은가.

떨리는 마음으로 우린 다시 만났다. 그녀의 아기를 보면서 이제는 나와 그녀 둘만의 관계를 넘어 그녀의 아기들까지 관계가 확장되는 것 같아서 흐뭇했다. 과거 우리의 대화는 이모, 삼촌, 가게 아가씨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뤘지만 현재 우리의 대화의 주제는 다양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심리상담, 우리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 결혼, 남자, 살림과 육아, 부모님과 가족관계에서 겪는 일상적인 일들... 일상의 소소한 꺼리들이 우리들의 수다 주제였다. 그녀는

편안해 보였다. ‘남편의 일이 잘 될까,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시킬까’ 하는 등의 일상의 걱정들은 눈앞에 있지만 그 일상이 살아가게 하는 힘인 것처럼 느껴졌다. 앞으로도 그녀와 나는 인생의 고된 숙제들을 앞에 두고 끙끙대며 어떻게 해야 할지 발을 동동 구를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마다 이렇게 만나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힘을 주고, 인생의 숙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든든한 친구 하나를 얻었는데 뭐가 걱정일까?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와 있다.



심리상담으로 자기 안에 “마음의 친구”를 만나보세요!

마음이 힘들어서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언니들, 정선과 약을 먹고 있는데도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언니들, 답답함이 목까지 올라오지만 해소할 데가 없어서 속앓이를 하고 언니들, 심리상담이 필요하신 언니들은 연락주세요~!

- 010.8230.6279 문자로 “심리상담 신청, 이름000, 연락처 0000”이라고 신청해 주시면, 심리상담가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찾아가는 상담도 가능합니다.

*소액의 상담료와 장소는 조정가능합니다.



언니들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어떠한 이야기도 좋아요. 내 인생 풀어내면 소설 뽐치지~하는 언니, 억울해서 못 살겠다 답답한 이야기 하소연할 데 없는 언니, 나도 신문에 좀 나보자! 하는 언니. 모두모두 좋아요. 살포시 문자주세요. 소소하지만 깨알 같은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 사연 보낼 곳!

E-mail: eloom2003@naver.com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32-12 5층 “별별신문” 담당자 앞



신문배달 신청 받습니다!!

별별신문은 창간준비호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가게 주소나 언니들이 받기 편한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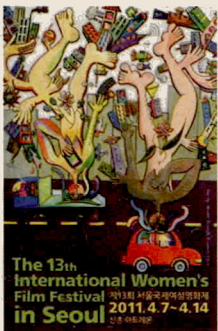
문자신청 : 010-8230-6279

별별영화제1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매년 4월 초 꽃피는 봄날이면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열립니다.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 (See the World through Women's Eyes!)"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올해로 13회를 맞은 이 영화제는 2011년에는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8일간 계속되었습니다. 여성영화제? 여자만 갈 수 있는 걸까요? 아니죠~ 남자들도 영화제를 즐기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몇몇 작품을 제외하고는 여성 감독이 만든 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성의 시각으로 삶의 여러 모습들을 다룬 영화들이 상영되고 다양한 공연과 파티도 열리는 등 한바탕 축제가 벌어집니다. 몇 년째 변함없이 출석하는 골수 팬들이 많아서 화제작은 금방금방 매진되는 아주 인기 있는 영화제예요. 극장 앞에 많은 여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장관입니다~;;

1년에 단 일주일! 하루 종일 여성영화가 상영되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내년을 기약하며 안녕~



제 15회 인권영화제

여성영화제를 놓친 것이 아쉬운 분이라면 주목해야 할 또하나의 영화제! 올해로 15회를 맞은 인권영화제입니다.

(http://sarangbang.or.kr/hrfilm/)

일시 : 2011년 5월 19일 (목) - 22일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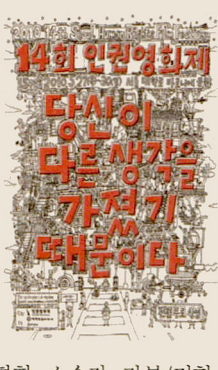
장소 :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무료)

인권영화제?

인권..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지요. 인권영화제는 영화를 통해 세상의 인권침해 현장을 고발하고, 인권의식과 감수성을 널리 퍼뜨리기 위한 영화제입니다.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인권영화를 볼 수 있도록 무료로 상영됩니다. 2010년에는 자유/평화, 소수자, 자본/저항, 빈곤/노동이라는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고, 현재 올해의 국내 상영작 11편이 확정되었다고 하네요.

영화를 공원에서 듣다고??

인권영화제는 4년째 거리에서 상영 중입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틀게 되면 '등급분류'라는걸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상영을 위해서 영화를 거리에서 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 대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으니 영화제를 은근히 횡방 놓는 일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인권영화제는 곳곳하게 올해도 계속됩니다! 쭉~욱~ 따뜻한 5월의 봄날,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공짜로 영화 봐요~~~



업계동향, 뉴스있슈!

- 단속 사각지대 키스방 “딱 걸렸네”..서울특사 경, 48명 탈미, 2011.4.18
- 강남오피스텔 기업형 성매매 무더기 적발, 2011.4.18
- 포항 유흥업소 여성 잇단 자살, 누가 그들을 죽음으로..(시사매거진2580), 2011.4.17
- 포항경찰의 ‘성매매 방지’ 캠페인 업주들 저지로 파행, 2011.4.15
- 집창촌 폐쇄·단속 반발 성매매 여성들 “생존권 보장” 집회, 2011.4.14
- 대구지법, 미성년자 성매매 교사 선고유예, 2011.4.14
- 탈북여성 70명 인신매매 후 성매매 강요, 2011.4.12
- 경북경찰청, 유흥업소女종업원 자살방지 대책위 구성, 2011.4.8
- 포항지역 유흥업소 대책위 핫라인 개설, 2011.4.6
- 현직 세무서장이 유흥업소 탈세 돕고 성접대 받아, 2011.4.6
- 경찰, 강남 유흥업소 필로폰 성매매 수사, 2011.4.4
- 포항 유흥업소 여종업원 잇단 자살...여성단체 “인권착취 업주 처벌해야”, 2011.3.28